



새싹편지 12



12.07 ~ 12.10 종강 그리고 겨울학기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학생들은 자신과 싸움을 하며 고난의 기말고사를 치렀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갑자기 내린 눈으로 마음을 들뜨게 했다. 시험을 끝낸 학생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하얀 눈길에 발자국을 내며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마지막 학기인 겨울학기가 10일부터 시작됐다. 1학년 학생들은 강재희, 이성희 교수님의 유아음악교육 수업을 듣고 2학년 학생들은 한희경 교수님에게서 교직과목인 특수교육개론을 수강

하고 있는데 추운 날씨는 싫지만, 수업은 정말 재미 있다고 한다. 반면 3학년은 성원경, 한희경 교수님의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 덕분에 바쁘고 화끈한 겨울학기를 보내고 있다. 봄이 되면 교육실습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계절학기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채우기 위해 공부를 하는 학생도 보이고,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운동하며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다

12.18 3학년 이화어린이연구원 방문하다.

우송대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들은 선거일 전날인 12월 18일 이화어린이연구원을 견학하였다.

이화어린이연구원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들에 의해 개발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상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푸른별 지킴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한 지속가능개발교육이 유엔협회로부터 사례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대전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여 11시 30분에 이화어린이연구원에 도착한 후, 먼저 기관 내부를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보이는 복도는 아이들 작품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그 작품은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것과 같이 투명한 유리를 액자로 하여 진짜 작품처럼 보이도록 하였었다. 교실 내부는 깔끔하였으며 영역별 교구는 시중에 판매되는 것보다는 직접 제작한 교구가 많았으며 교실마다 베란다와 같은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다. 도서관은 일반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책상 밑과 같은 공간에서도 읽을 수 있게 공간을 조성하였고, 소파나 의자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으며 아이들이 도서관에 대해 딱딱한 이미지가 아닌 편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었다.

공간 활용도가 적은 곳은 최대한 아이들의 의견을 받

여하여 조성하였다. 예를 들어 계단에 놓여진 방석을 이용하여 계단과 계단 사이에 티브이를 놓아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화어린이연구원은 성탄절을 맞아 플라스틱병, 계란판, 종이접기, 요구르트 병 등을 이용한 트리를 전시하였으며 5세가 만든 요구르트병 트리는 교사가 전구를 달아 불빛이 들어오도록 장식하였다.

학생들은 도서관이 가장 인상 깊었으며 지속가능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이라 폐품을 이용한 작품이 많아 교사가 될 입장으로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한다.

이화어린이연구원 방문 후 4명이 한 조가 되어 자유롭게 서울탐방을 하였다. 한 그룹은 인사동을 방문하여 갤러리의 독특한 전시 방법을 보고 유아교육에서 조형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였으며 립밤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며 유아가 천연 크림을 이용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또한, 냄비빙수를 먹으며 유아 요리 활동에 다양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보겠다는 등 체험마다 교육과 연관시키며 예비교사로서의 열의를 보였다.

12.19 1학년 첫 투표를 마치다.



1-A 양승희 학생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투표가 있었다.

투표는 만 19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시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투표소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기호 1번 박근혜가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18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 25일에서 2018년 2월 24일까지인 5년 동안이다.

2,3학년 학생들도 대선 투표는 처음이었지만 올해 만 19세가 되어 첫 투표를 한 1학년 학생들은 벌써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설렜다고 한다. 첫 대선에 꼭 참여하겠다고 하며 부재자 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한 학생도 있었다. 12학년 양승희 학생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뉴스와 토론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선거일이 다가오자 후보들의 공약과 연설을 들으며 친구들과 정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 한다. 그리고 “투표중계방송도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며 직접 뽑으니 신경 쓰지 않던 투표율에도 관심이 갔고, 점점 올라 가는 투표율을 보며 괜히 뿌듯했다. 하지만 전체투표율은 75.8%로 높았지만 그중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는 기사를 보며 안타깝기도 했다.” 고 첫 투표의 소감을 전했다.



지혜 기부 프로젝트 “교수님들의 추천 도서”

< 내 안의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 >



저 자 : 제인 블루스틴
출판사 : 푸른 숲
추천인 : 성원경 교수님

이 책은 저자 블루스틴이 교사가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확인 확인하고자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 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저자의 지인과 유명 인사뿐 아니라 호텔 종업원, 택시기사 등 여러 사람들이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이끌어 낸 이 글에서 교사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교사의 세심하고 민감한 학생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학생에게 큰 힘과 지원이 되어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또한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유치원교사의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경험하였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인인 대학생들도 누구나 자기 안에 빛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끌어내고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경험해보았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가르치는 직업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가도 알게 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도 생각하게 된 좋은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의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어떤 학생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책이다. 앞으로 교사가 될 학생들도 이 책을 읽어 보길 권한다.

< 먼나라 이웃나라 - 우리나라 >



저 자: 이원복
출판사 : 김영사
추천인 : 한희경 교수님

멋진 교사가 될 우리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원복 선생님의 '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편을 강력히 추천해요. 사실 제가 처음 접했던 버전은 2002년도에 영어로 출판된 [Korea: Unmasked]였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기 위한 자료로 구입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한국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책이었어요.

만화로 되어 있어서 읽기 쉽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내가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었는지 또는 착각하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인종들에 대한 새로운 눈과 마음도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국인의 성향을 'extreme (극단적인)';이란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쪽 훑으면서 한국인의 극단적인 성향이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해 왔는지 다양한 에피소드로 보여주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몽클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만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대학생들은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구세대적인 유물이나 관념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만화를 읽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애국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문화의 시작은 나의 문화를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저자 : 헤민스님
출판사 : 쌤앤파커스
추천인 : 강재희 교수님

나를 더욱 사랑하는 법,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

헤민스님은 특히 미래와 관련해서 삶은 나 자신과 별이는 장기레이스이며 소신 있게 밀고 나가고 스스로 주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읽어보면 학생들 인생설계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 미래에서 온 편지 >



저 자: 현경
출판사 : 열림원
추천인 : 이성희 교수님

저는 현경의 미래에서 온 편지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현경

이 쓴 모든 책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현경은 책에서 이 세상의 젊은 모든 여성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여신이 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에너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 특히 어린이와 지구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데 이 책이 많은 도전과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토지 >



저자 : 박경리
출판사 : 마로니에북스
추천인 : 김진영 교수님
박경리 선생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 중 한 분 입니다. 개인적으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는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토지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와 함께 많은 등장인물에 대한 뛰어난 심리묘사와 삶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수작(秀作)입니다. 나는 20여 년 전 솔출판사에서 나온 16권으로 된 토지를 읽고 감동 받아서 16권을 모두 구입하여 서가(書架)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그 장면을 다시 읽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나는 우리나라의 아픈 근현대사를 마음에 담고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작가(作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해 주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보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추천합니다.



우송유치원 소식

“신입원아들의 두 번째 유치원 나들이”



2012년 12월 20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우송유치원에 입학할 신입 원아들의 두 번째 유치원 나들이가 있었다. 이번 유치원 탐방은 지난 11월 24일에 진행되었던 유치원 탐방에 이어서 진행되었고 지난 탐방과는 달리 이번에는 유치원 일과의 몇몇 부분을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신발을 신발장에 정리해 보고 맛있는 방에서 간식을 먹은 후 접시와 컵을 직접 챙겨 정리하였는데 처음 경험하는 것임에도 유아들 모두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번 탐방에서 유아들은 2층 교실을 직접 이용해 봄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놀이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리 후, OHP 동화를 보았는데 처음 보는 유아가 많아서인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화 속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정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스스로 신발을 찾아 신는 유아들의 모습에 교직원 모두 뿌듯해하며 두 번째 유치원 나들이를 마쳤다.

만드는 사람들

지도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3학년 김진희
2학년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1학년 김유현 김지윤 박지원